

투데이 칼럼

주목받는 북한 풍계리와 동창리

북한의 무력시위 행진이 이어지고 있다.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과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을 재가동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미국은 대화를 강조하면서도 도발에는 제재로 응수하겠다는 메시지도 함께 보내고 있다.

지난해 10월 노동당 창건 76주년을 맞아 열린 국방발전전담회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시선이 한 곳을 향했다. 북한판 토마호크로 불리는 중장거리 순항미사일이었다. 북한은 지난 1월 25일 동해상으로 순항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순항미사일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은 아니다. 그러나 김정은 위원장이 핵실험과 ICBM 발사 재개 가능성을 시사한 이후 첫 무력시위였다. 장거리 순항미사일은 탄도미사일보다 파괴력이 약하지만, 명중률이 높아 정밀 타격이 가능하다.

북한도 장거리 순항미사일을 '절단 핵전술무기'라고 소개하고 있다. 북한은 순항미사일을 발사한 지 이틀 만에 동해상으로 지대지 전술유도탄 2발을 또 발사했다. 비행 거리는 약 190km, 고도는 약 20km로 탐지됐다. 북한이 이처럼 낮은 고도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건 매우 이례적이다.

김정은 위원장은 최근 중요 군수공장을 2년여 만에 시찰했다. 그러



정복규
논설위원

나 북한 매체는 구체적인 시찰 날짜와 공장 위치는 밝히지 않았다. 군수공장 핵심 관계자들의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했다.

미국의 새 대북제재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면서도 외교적 해결 의지를 재확인했다. 대화를 계속 추구하고 있으며 경제조건 없이 북한과 만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풍계리 핵실험장과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실제로 북한은 미사일 발사장서 ICBM을 시험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

4년 전 북한은 대대적으로 선전했던 풍계리 핵실험장을 폭파했다. 당시 북한은 과거 5차례 핵실험이 이뤄졌던 2번 경도를 가장 먼저 폭파했다.

이어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위해

새로 뚫은 서쪽 4번 경도와 남쪽 3번 경도를 차례로 폭파했다. 아직 한 번도 핵실험이 이뤄진 적 없는 경도까지 폭파함으로써 보여주기식 쇼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북한은 전문가들 차관이나 사를 규탄하면서도 외교적 해결 의지를 재확인했다. 대화를 계속 추구하고 있으며 경제조건 없이 북한과 만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풍계리 핵실험장과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실제로 북한은 미사일 발사장서 ICBM을 시험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

4년 전 북한은 대대적으로 선전했던 풍계리 핵실험장을 폭파했다. 당시 북한은 과거 5차례 핵실험이 이뤄졌던 2번 경도를 가장 먼저 폭파했다. 이어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위해

회의 압박도 부담이기 때문이다.

대신 풍계리 핵실험장을 복구하는 모습을 일부러 노출시키며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를 자극하는 전략을 취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 반면 ICBM 시험 발사는 핵실험보다는 실행 가능성이 높다.

인공위성 발사를 명분으로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서 ICBM을 시험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 북한은 핵미사일 행보는 의도적으로 노출시키면서도 북중 국경 봉쇄가 일부 완화된 사실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중국 당국이 단둥 지역 방역을 강화한 배경에도 관심이 쏠린다. 방역 요건이 강화된 곳은 북중 국경이 맞닿은 단둥시 전신구다. 북중 화물열차가 다니는 압록강 철교와 신압록강대교 등이 있는 지역이다.

단둥을 떠나려면 48시간 내 코로나 핵산 검사 음성 판정을 받아야 한다. 북한은 지난해 말 닷새간 진행된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새로운 방역 정책을 천명했다. 그러면서 통제 위주의 방역 방식에서 벗어나 백신을 도입하고 봉쇄도 풀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았다.

유엔도 북한에 백신 6천만 회분 지원 의사를 밝혔다. 영유어를 제외한 북한 주민이 세 차례 접종할 수 있는 분량이다. 그러나 아직 북한의 응답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설

피터킹의 대한민국 지도자 역할

최근 어느 출판사에서 출간한 피터킹 저자 '제20대 대통령은 운명이다'라는 책에 관심이 일고 있다. 이 책은 차기 대통령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물음에서 시작되었다.

이 책의 핵심 내용들은 매우 다양하다. 남북관계 갈등 대치, 국내 정치 혁신, 경제 민주화 등 굵직한 과제가 북병처럼 도사리고 있다. 이런 중차대한 과제들은 누가 대통령이 되어도 쉽게 극복하기 어려운 문제다.

기업들이 글로벌 선두 기업으로서 국제 사회에서 위상을 공고히 하려면 한국적 글로벌 경영 방식이 가진 강점을 더 개발하고 약점을 극복해야 한다. 정치·사회적 자유가 높은 나라는 소득 수준 역시 매우 높다.

언론이 정치권력을 투명하게 만드는 역할도 중요하다. 기후 재앙 역시 철재철명의 위급사안이다. 대통령이 되려면 먼저 다양한 자질을 구비해야 한다. 시대의 요구와 흐름을 주도면밀하게 읽을 수 있어야 한다.

저자 '피터 킹(PETER KING)'은 당초 소정현(蘇正炫) 기자라는 이름으로 활약했다. 대학원에서 국제정치학을 전공하고 일간지에 입사, 국내외의 핵심 이슈들에 대해 전문적 식견과 통찰을 가지고 여러 매체에 반영시켜 왔다.

그는 21세기 복잡다단한 여러 변수의 이질성과 공통성을 스킵드 있게 해부했다. 새로운 시대의 패러다임을 단순 명료하게 조합하고 배열하는 데 탁월한 역량의 소유자이다.

저서로는 미중 갈등의 '그랜드 차이나벨트'를 비롯 대기 오염의 실상을 규명한 '물린 에어(Clean Air)'가 있다. 노아 홍수 치·사회적 자유가 높은 나라는 소득 수준 역시 매우 높다.

언론이 정치권력을 투명하게 만드는 역할도 중요하다. 기후 재앙 역시 철재철명의 위급사안이다. 대통령이 되려면 먼저 다양한 자질을 구비해야 한다. 시대의 요구와 흐름을 주도면밀하게 읽을 수 있어야 한다.

전북 최고 지도자 평화통일세미나

전북 최고 지도자 초청 평화통일 세미나가 최근 전주에서 열려 관심을 모았다. 전주평화연합 호남 제주 지구 주최로 열린 세미나에는 50여명의 각계 최고 지도자가 참석했다.

이상재 회장은 "한반도의 평화 정착과 통일 시대로 나아가도록 참가정 운동과 두익 평화통일 운동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강조했다.

한반도 평화 협력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남북 및 동북아시아 평화와 번영이 절대 과제다. 문제는 한반도 통일만이 북한 핵 프로그램을 제거하는 한 가지 방법이라는 점이다.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북한 정권의 생명줄인 중국을 주목해야 한다. 현 상황에서는 중국과 논의를 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중국이 경제적 압박을 통해 북한 정권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도록 만들 수 있다.

장기적 차원에서 동북아시아의 안정이 필요하다면 중국은 핵무기 없는 한반도를 원할 것이다.

그렇게 하는 최상의 방법은 한반도 통일을 하는 것이다. 북한은 이미 핵을 보유했을 뿐 아니라 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은 물론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 능력까지 갖게 됐다.

그리고 중국은 북한을 지원하면서 지금까지 북한 정권을 존속하게 만들었다. 북한은 앞으로 절대 핵을 포기하는 전략적 결단을 내리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중국과의 협력이 절대적이다.

중국이 지원하는 석유, 연료 등은 북한 경제의 생명줄이다. 이것이 없다면 북한 정권은 쉽게 무너질 것이다. 미국은 이제 마중 관점에서 북한 문제를 중심에 두는 장기적인 대북 전략이 필요하다.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평화와 항구적 공동 번영을 이룩해야 할 때이다. 이를 위해서는 좌우익의 이념을 극복할 수 있는 공생 공영 공의의 가치가 매우 중요하다. 남과 북이 진정으로 하나 되는 신통일한국 운동이기 때문이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홍콩, 내달부터 전 주민 강제 코로나19 검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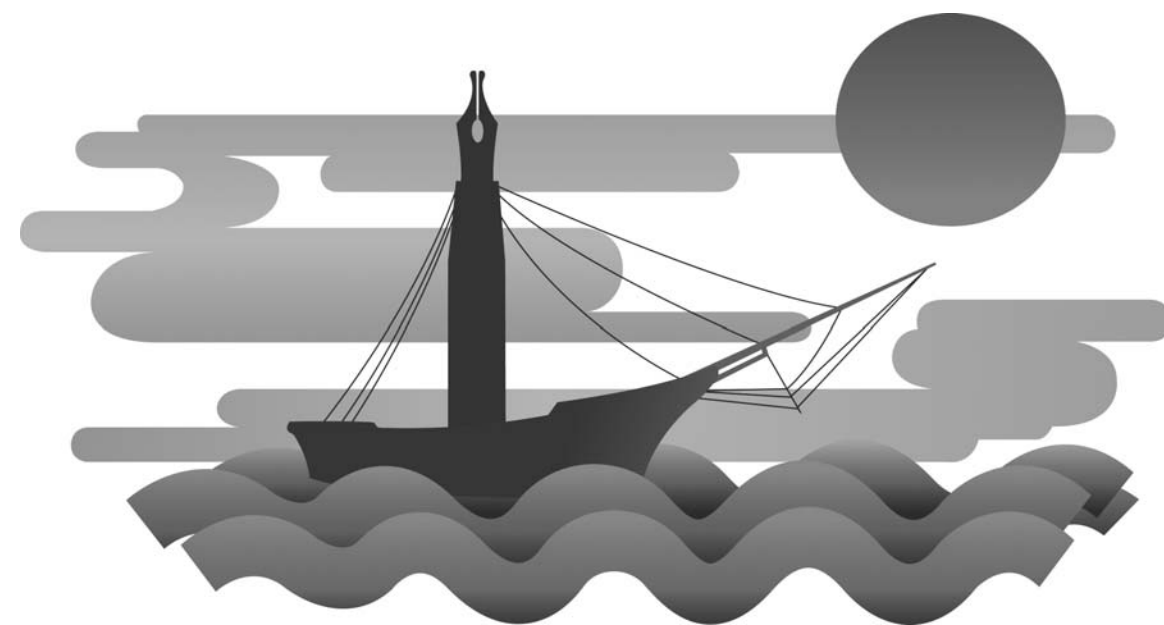


지난 18일(현지시간) 홍콩 코즈웨이 베이 쇼핑가의 한 빈 식당에서 이곳 직원이 손님을 기다리고 있다. 홍콩의 코로나19 환자가 4천 명을 돌파하는 등 폭증세를 보이자 당국은 750만 전 주민에 코로나19 강제 검사를 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홍콩 시민은 다음 달 초부터 일주일마다 1회씩, 3주 동안 총 3회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를 거부할 경우 약 15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우크라이나에 연대 표명하는 폴란드 사람들



17일(현지시간) 폴란드 버르사에서 시민들이 이웃 국가인 우크라이나 국기를 들고 우크라이나 지지 집회에 참석하고 있다. 폴란드는 러시아의 침공 우려가 있는 우크라이나에 연대를 표명하고 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